

**3월 28~30일(월~수)은
2016학년도 총여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

연세대학교

제27대 총여학생회선거

정책자료집



TUES 22	국제캠	1차 합동유세 & 정책토론회	3/22(화) 20:00 ~ @제2기숙사 G동 로비 계단(치킨 계단)
THURS 24	신촌캠	2차 합동유세 & 정책토론회	3/24(목) 14:00 ~ @학생회관 앞 계단
MON 28	투표 기간		
WED 30			
개표 안내 @학생회관 로비		3/30(수) 09:00 ~ 19:00 신촌 학관 앞(아외), 위당관(청경관 앞), 새천년관, 삼성관 과학관(28), 한울샘 앞(29), 음대(29), 간호대(30)	
		3/30(수) 11:00 ~ 21:00 국제 제1기숙사, 제2기숙사	



연세대학교 제5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cafe.daum.net/yonselection>



3월 28~30일(월~수)은 2016학년도 총여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월)~30일(수)는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우리 여기서,

잇
다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여학생회 선본

정책자료집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여학생회 잇 - 다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후보자 소개
2. 총여학생회론
3. 기조
4. 정책

잇다

정후보 김남희(국문, 13)

2013

지리산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 수습편집위원

2014

제9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몽땅> 부학생회장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 편집위원
시작 포럼 기획단 단원
연세대학교 또래상담가 1기 수료
2014 통일연세 농활 국문-문정 연합 농활대
여성주체 및 농주체
사회과학-여성주의 학술모임 <새물> 활동

2015

국문과 OT 성소수자 이해를 위한 <이상한 이야기> 발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다시 봄> 집행부원

2016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꽃눈>
부비상대책위원장
-장애인권위원회 위원
학내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 모임

부후보 최지연(UD, 12)

2011

Arlington Catholic High School 졸업

2012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입학

2013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정치외교학과 진입

2014

연세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
자치활동기획국장 활동
Standard Chartered Korea 지주사 준법감시팀 인턴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부 인턴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잇 - 다

총여학생회론



총여학생회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단체일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왜 존재해야 하나, 총남학생회는 왜 없나, 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여자에게만 있는 학생회가 전체 학생회의 의결권을 가지나, 총여학생회는 존재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 받는다.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정말 사라져야 하나? 사회는 정말로 '다양화'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었고 학교에서 여학생은 '기편고' 다니는, 바야흐로 여성상위 시대라고 보기는 힘들다. 총여학생회가 정말 사라져도 되는 사회라면, 그러니까, 다양화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공통의 억압 받는 경험이 사라진다면, 총여학생회는 기꺼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당장 가능한 이야기인가? 총여학생회가 사라져도 괜찮은 진정한 성평등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평등한 사회인지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평등한 적은 아직 이 사회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해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교 강의실에서조차 일상으로 둔갑한 성차별적인 말들은 여전히 실재하고, 자라오면서 겪은 사소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경험은 오히려 겪지 못 한 여성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지난 해 총여학생회에서만 담당할 성폭력 상담건수는 200건이 넘는다. 성평등 센터로만 신고/상담하였거나,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하였거나, 차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성폭력은 연세 사회에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해야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 상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폭력의 본질은 결국 권력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는 이런 권력관계 구조를 보아야 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젠더 권력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이 권력관계와 권력체계를 보는 것이 총여학생회가 해야 할 일이다. 총여학생회는 여타 학생회, 공동체가 미처 고려하지 못 하는 주변의 소수자를 보아야 한다. 권력관계로부터 배제되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페미니즘의 지향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젠더위계 같이 총학생회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총여학생회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회에서 그 누구든 '약자의 경험'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되새겨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6대 총여학생회 평가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2015년은 총여학생회에게는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2013년 출마한 <The 好>가 2014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전환되어, 비대위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의 공백은 총여학생회의 입지 약화, 심지어는 폐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한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이하 26대)은 총여학생회의 입지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주요 공약 '반성폭력, 반차별'

2015년엔 유독 공론화된 성폭력 피해가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마다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든든한 보루가 되었고, 깊은 감수성으로 피해자와 사건의 해결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론화는 연세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학내에 반성폭력 문화가 확산 되도록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학생회 전화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사건을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반성폭력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학내의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본부에 차별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장애학우, 성소수자 학우를 빠짐 없이 지칭하였습니다. 소수자와 관련한 문화 사업을 진행한 것 역시 비가시화 되었던 소수자 학우들에게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 본부에 요구했던 정책에 대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27대 총여학생회 선본 <잇다>의 기조-정책은 반성폭력, 반 차별이라는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의 기조-정책과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대 총여학생회가 지금까지 다져왔던 기반에 힘입어, 조금 더 밀접하게 학우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힘 쓸 것입니다.

학생 곁에 있는 총여학생회, 존재감 있는 총여학생회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이 2015년 여름방학과 2학기에 걸쳐 주최한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이하 세다페)은 이례적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행사였습니다. 기획단 30여명과 함께 기획한 세다페는 기획단을 제외하고 약 70명의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세다페> 기획단이 발간한 기록 매체는 모두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는 학내에 페미니즘 담론을 알리고, 총여학생회의 존재감을 알린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한 문화 사업 역시 여러 학우들에게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알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봄>은 이러한 사업들로 학내에서 총여학생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학내/학외의 여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잇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잇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국제캠퍼스와의 거리를 좁히다.

〈3.8 여성제-진정한 나로 살아남기〉(이하 여성제)와 〈더 평등한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이하 더평캠)을 국제캠퍼스에서 진행하여 캠퍼스 간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평등 센터가 따로 없는 국제캠퍼스를 위하여 상담원 확충/성평등센터 설치를 요구한 것 역시 국제캠퍼스에 대한 고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국제캠퍼스에 성평등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고, 신촌에서 진행한 사업에 비해 국제캠퍼스 사업의 내용이 부족했던 것은 아쉽습니다.

국제캠퍼스는 거의 모든 새내기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과 공동체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에 〈잇다〉는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에 소모임을 개설하여 국제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더 쉽게 총여학생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1년 간 부재했던 총여학생회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내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학내의 여러 담론들을 만들어 냈고, 수없이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훌륭히 대응했습니다. 〈잇다〉는 26대가 만들어둔 기반에 힘입어 더 풍부하고 다양한 담론을 만들고 다양한 소수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걷는 우리 여기서, <잇다>

기조를 소개합니다

1.

“학생 공동체는 살아있습니까?”

참 오래된 질문입니다. 공동체는 살아있다, 는 확답 대신 ‘파편화된 사회’ ‘취준에 정신 없는 대학생들’ ‘죽어가는 학생사회’ 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십니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공동체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외면해왔습니다.

OT, 새터 기간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선 16년도의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며,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고, 심지어 폭력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항상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왜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잇다>는 이 문제의 원인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문화’의 부재로 진단합니다. 권력을 가진 ‘다수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공동체는 성찰 없는 공동체, 불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성찰 없이 흘러온 연세대학교 공동체에서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파편화되고, 지워졌습니다. 이제 <잇다>는 질문합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학교가 누구든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2.

2015년은 혐오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혐오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으며, 뒤이어 ‘양성혐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공론화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때 다시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혐오발언을 ‘특별히 나쁜 사람’만 저지르는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이미 치우쳐있는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인 혐오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상하고 나쁜 사람’의 ‘혐오’와 일상적인 혐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잇다>는 혐오 발언과 차별을 나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권력관계-특히 젠더 관계-의 불평등한 배치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혐오를 하는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혐오표현과 차별을 막아내는 것은 학내의 권력관계를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곳을 살피는 것이며, 본인조차 느끼지 못했던 차별과 혐오의 경험을 일깨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학생회 선본

잇다

〈잇다〉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잇겠습니다.

1.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고정된 성 역할이 없는 공동체,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사유하며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2. 학내의 혐오발언과 차별 사례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일상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혐오에 저항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구성된 권력관계를 뒤집어야 하는 일이기에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잇다〉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차별과 혐오 사례를 받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혐오를 드러내는 일이 지나치게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3. 소수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연세 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사회의 중심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학생사회, 나아가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성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잇다〉는 학내에서 비 가시화되기 쉬운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연세 구성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학생회 선본

잇다

정책을 소개합니다



여 성 주 의 와 잇 다

1.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vol.2' - 방중 페미니즘 세미나 개최

페미니즘이란 무엇일까요? '여성우월주의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진짜 페미니즘은 없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더하겠습니다. <잇다>는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의 사업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2. 학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학내에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페미니즘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지만 아무래도 소규모 단체인 만큼 지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잇다>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 및 경험 교류를 장려하겠습니다. 단지 총여학생회로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의 기반을 존중하겠습니다. 학문교류 세미나, 온라인 매체 발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성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3. 총여대전 - 총여학생회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최근 이과대 교수의 '막말'을 비롯해 교수의 차별적 혐오 발언을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혹시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불편함을 참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잇다>는 다양한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자보, 웹 게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별에 대응하겠습니다. 성별, 종교, 인종, 성적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평등한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혐오, 잇다

혐오발언은 그 대상을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혐오발언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혐오는 일상적이며 우리의 삶과 밀접히 닿아있습니다. <잇다>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혐오와 차별의 사례를 귀담아듣고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집한 혐오/차별 발언 사례를 모아 웹 매체를 발간하고, 부스를 설치하여 이를 홍보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캠퍼스 분위기를 장려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여학생회 선본

잇다

국 제 캠퍼 스 와 잇 다

1. 국제캠퍼스 소모임 개설

국제캠퍼스는 대다수의 새내기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과 공동체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에 <잇다>는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에 소모임을 개설하여 국제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더 쉽게 총여학생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 신설을 통해 기층단위에서의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제캠퍼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총여학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 국캠 성평등센터 요구

국제캠퍼스에는 성평등센터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신촌에 단 한 분 계시는 성평등센터의 상담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국제캠퍼스에 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상담원 선생님 한 분에게 모든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국제캠퍼스를 가는 것으로는 국제캠퍼스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상담하고 처리하기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잇다>는 국제캠퍼스에 국제캠퍼스만을 위한 성평등 센터를 설립하여 국제캠퍼스에 전문 상담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반 성 폭 력 과 잇 다

1. 성평등센터 상담원 확충 요구

2016년 기준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의 성폭력 전문 상담 인력은 비정규직 단 한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신촌 캠퍼스는 물론 국제 캠퍼스를 오가며 2만 연세인의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 인력의 배치는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를 위한 첫걸음이자, 성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잇다>는 학교 본부에 공식적으로 성평등센터 상담원 인력 확충을 요구할 것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성평등 자치규약 홍보

연세대학교 학생 공동체는 지난 2000년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명료한 개념 정리와 구체적인 상황 소개를 통해 학내 '반성평등'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도모하게 한 우수한 자치규약입니다. 그러나 긴 분량의 줄글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잇다>는 카드뉴스 및 팸플릿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층 단위에서 보다 쉽게 성평등 자치 규약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음주문화 성찰 캠페인 진행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로 술자리가 잦은 3월이면 대학생들의 폭력적인 음주 문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회는 물론, 자치 공동체 단위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과 반성도 잠시일 뿐, 강권과 불쾌한 스킨십, 술게임과 장기자랑 등은 고질적인 악습으로 남아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입생 환영 기간이 끝나면 이를 지양하려는 움직임을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잇다>는 일회성 이벤트로서의 캠페인이 아닌 학생 당사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음주 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음주 문화를 단순히 금기시하는 것을 넘어 대안적 음주문화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구상할 것입니다.

4. 성평등 센터 홍보

연세대학교 본관 옆에는 '논지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논지당은 성평등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성평등 센터는 성폭력 상담은 물론, 멘토링 및 커리어 프로그램, 여학생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세 학우들은 이러한 전문 기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다>는 성평등 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성평등 센터가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들을 홍보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연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평등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5. 성폭력 사건 피해자 상담 연계 지원

연세대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센터 추정 성폭력 사건 접수율은 전체 발생 건수의 10%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되지 않고 지나가는 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평등 센터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상담만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다른 학교 기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잇다>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상담 연계를 장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다양한 루트의 사건 접수를 취합하여 전문적인 상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성인지교육 내실화

연세대학교는 OT, 확대간부수련회, 후보자교육 등을 통해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을 주로 다루며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상황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하며 교육합니다. 매번 모니터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용이 균일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잇다>에서는 성인지교육 전후 정확한 내용전달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성인지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성인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 수 자 와 잇 다

1.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 개최, 장애인권 단체와의 연대

연세대학교 내에는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 성소수자 인권행동 Queer We Are, 장애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소수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에서 소수자 학우들의 존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혹은 '드러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쉽게 지워지곤 합니다. <잇다>는 성소수자 단체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장애인권 문화제에 협력하여 학내 소수자 학우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소수자 인권 단체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하겠습니다.

2. 장애인 및 성소수자 차별 사례 수집, 대응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의 전공 수업 중 일부가 진행되는 빌링슬리관은 3층까지 강의실이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 옆에 설치하는 휠체어 리프트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링슬리관 내의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 학우의 이동권과 수업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잇다>는 이러한 학교 행정과 관련한 차별 사례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발언 등 소수자 학우들에 대한 학내 차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하여 차별 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외국인 학생을 위한 중국어, 영어 상담 진행

최근 몇 년간 연세대학교 내의 외국인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어가 불편한 외국인 학우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잇다>는 정후보와 부후보의 외국 생활 경험,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을 위한 중국어, 영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와 구글닥스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近几年来延世大学留学的外国留学生逐渐增加。由于外国留学生韩语不够熟练，校园生活中会碰到多多少少的困难。《잇다》的候选人各有在中国和美国生活过的经验，汉语英语说的都非常流利。我们将利用这些优势，为外国留学生进行英/汉语的咨询。积极利用Facebook和Google docs还在网上进行咨询。办公时间内可以通过Facebook message等方式联系《잇다》。我们为您服务。谢谢！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Yonsei University has increased consistently for the past few years. Although the number of English courses has also increased,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not fluent in Korean still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fe. <잇다> will hold counseling sessions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ese and English by making good use of our candidates' experiences in China and the U.S. and their language capabilities. <잇다> will be the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by actively using different online platforms, such as Facebook messages and Google docs.

1. 대안 영화와 연세를 잇다

영화계가 지나치게 (이성애자) 남성중심적이라는 문제제기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표독스러운 악녀, 자애로운 성녀, 최고의 미녀, 정반대의 추녀-영화 속엔 편향된 여성 캐릭터들이 있을 뿐, 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여성성의 총위를 그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다양한 여성성, 비이성애중심주의, 반폭력 등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잇다>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연세 학우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대안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무료티켓 나눔 등을 통해 학내에서 대안 영화제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대안 생리대공구

월경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됩니다. 월경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문화 역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생리대의 불편함을 보완하거나, 생리대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과 환경의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대안생리대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보급되지 않아 구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잇다>는 여성이 자연스러운 생체 현상인 월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대안 생리대의 종류와 착용법을 상세히 알리며 공동구매를 주도하겠습니다.

3. 자궁경부암 백신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다>는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접종을 주저하는 학우들을 위해 다양한 업체와 연락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여자 휴게실 비품 관리 및 운영, 남자 휴게실 확대 운영 요구

여자/남자 휴게실은 학우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자 휴게실은 비품 분실이나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운영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남자 휴게실은 그마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가 적습니다. <잇다>는 여자 휴게실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남자 휴게실 확대 운영을 요구하여 연세인 모두가 휴게 공간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대안 공동체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이 소모임의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어떠한 권력관계도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력관계 없이도, 강권 없이도 공동체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평등한 학내 공동체의 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모임 내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사유하며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평등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학내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학생회 선본

잇다

총 여 학 생 회 와 잇 다

1. 총여학생회 자료 아카이빙

〈잇다〉는 기존 총여학생회에서 해오던 아카이빙을 체계화하여 진행할 행사나 세미나들의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속기, 회의록 등 다양한 정보를 아카이빙하도록 하겠습니다.

2.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 기반 마련

총여학생회는 총(연세 전체 학생구성원 기반)단위의 학생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회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비상대책위원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하위 운영위원회의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잇다〉는 정후보의 '총여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및 '확대운영위원' 경험을 살려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에 필요한 기반을 닦아 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설된 법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여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제 27대 총여학생회 선본

잇다

